백두산

14호 - 주체91(2002)년 4월 28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김정일총비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

10만명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26일 저녁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만세≫의 폭풍 같은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축포가 터져 올랐다.

배경대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새겨 지고 경기장바닥에서는 출연자들이 환희의 춤을 추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아리랑민족≫, ≪선군아리랑≫, ≪아리랑무지개≫, ≪통일아리랑≫ 등 여러 장으로 구성되여 진행되였다.

민족적색채가 짙은 음악과 무용, 체조와 교예, 립체화, 률동화된 배경대 그리고 각종 전광장치 등으로 신비경을 이루는 공연은 출연자들의 세련된 기교와 예술적형상,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과 축포가 터져 올랐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6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비전향장기수들이 편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립니다

무한한 감격과 환희속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는 오늘 주체조선의 수호자이시고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비전향장기수들은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뜻 깊게 기념한 감격이 온 강산에 메아리치고 있는 때에 건군절 70돐을 맞는 저희들은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로만 달리는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누를길 없습니다.

남쪽의 감옥에 있을 때 해마다 건군절이 오면 혁명무력건설의 길에 쌓아 올리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겨 보던 저희들이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백두산3대장군의 숨결이 어려있는 건군의 발자취 따라 걸출한 령장들의 거룩한 모습을 새겨 안으며 한 없는 감격에 가슴 적십니다.

70년전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밑에 주체적인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첫 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것은 세계전쟁사에 없는 항일대전의 장엄한 포성이였습니다.

바로 그날은 일제의 식민지 발굽밑에서 민족의 존엄과 목숨을 유린 당하고 모든것을 다 빼앗기며 처절하게 사멸해 가던 우리 겨레가 비로소 혁명의 총대, 애국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 쥐고 운명개척의 길에 들어 선 재생의 날이였으며 우리 인민이 자기를 구원해 주고 지켜 줄 참된 보호자, 믿음직한 군대를 가지게 된 다시없는 행운의 날이였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건군위업을 이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인 지략과 탁월한 령군술로 우리 혁명대오를 이끄시여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100만관동군을 때려 부시여 마침내 이 땅에 광복의 새봄을 안아 오시였습니다.

광복이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끊임 없는 도발책동을 분쇄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달려 든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군을 쳐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은 진정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로장이시고 백승의 령장이시였으며 민족의 구세주, 위대한 태양이시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휘날리며 만방에 빛을 뿌리고 승승장구할수 있은것은 희세의 명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펼치신 덕분입니다.

백두산의 총대가정에서 탄생하시여 백두의 혁명전통을 이어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앞에 류례없이 험난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 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엄혹한 나날 총대에 의거하여 나라를 지키고 조국과 혁명을 구원하실 단호한 결심을 품으시고 전인미답의 길,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시였습니다.

저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선군의 자욱마다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겁고도 순결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고귀한 헌신, 원쑤에 대한 불 타는 증오를 보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있어 우리 인민은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전쟁도발음모를 걸음마다 분쇄할수 있었으며 우리 민족은 전쟁의 재난과 위기에서 구원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가 없었더라면 은혜로운 우리 조국과 우리 제도의 오늘에 대해 생각할수 없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현실과 창창한 래일에 대해서도 상상할수 없을것입니다.

(2면에 계속)

2 종합
- **김정일**령도자께 오익제선생이 편지
-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이 편지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 여러 나라 당대표단, 대표들 ≪한민전≫평양대표부 방문
- 무엇을 위한 ≪집단적자위권≫ 주장인가

4 노작
-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9)

6 세기와 더불어
- 7장 2절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8 칭송
- 사랑의 기념사진
- 야전차에 흐르는 4계절
- **김일성**동지는 세계적인 수령

9 한국민족민주전선
- 위대한 탄생 빛나는 자국
- 승산없는 대결
- 부시, 이북을 ≪악의 축≫이라며 또다시 비난
-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

13 투쟁보도
- 용산운동본부(준), 6차시민대회
- 美 사회노동당, 주한미군철수 주장
- F-X사업 감사 촉구 기자회견
- 정부 국방백서 ≪주적≫ 표현 대체 검토
- 한총련대의원 수배자의 예비교사 되기
- 공무원노조 정부 탄압에도 강력한 조직력 확보
- 정신대할머니 ≪日청산≫ 토론차 방북

15 운동강좌
-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4)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오익제선생이 편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뜻 깊은 건군절 70돐을 맞이하고 있는 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 계시면 공화국은 필승불패한다는 신념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며 민족존엄의 상징이시고 자주국의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함 없는 경모의 정과 간절한 축원의 마음을 담아 삼가 이 글월을 올립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신것은 자기의 군대를 가지려는 우리 인민의 력사적숙원을 실현하신 특기할 민족적사변이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공화국의 혁명무력은 위대한 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일제와 미제를 타승한 두차례의 전쟁에 이어 세계제패를 꿈 꾸는 미제와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승승장구하여 왔습니다.

군사중시사상의 진리를 구현한 그 력사속에서 조선인민군은 이 세상에서 가장 투철한 정신력과 막강한 군사장비를 소유한 불퇴의 무장력으로, 유격전과 현대전, 공격전과 방어전, 대치전과 지구전의 모든 경험을 다 쌓은 불패의 혁명군대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바로 이러한 전통과 력사를 가진 이름 높은 정치이며 그에 뿌리를 둔 필승의 정치입니다.

력사가 힘이고 전통이 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 있고 력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시는 장군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족의 장래를 락관을 가지고 바라볼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의 이목은 위대한 장군님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군정치가 위력한 승리의 기치로 되는것은 군사적천재이시고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시하시고 펼치시는 정치이기때문입니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을 천품으로 지니신 장군님께서는 주체적인 군사전략과 전법으로 인민군대를 튼튼히 무장시키고 강력한 국방공업을 세우시여 어떤 정황에도 대처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혁명적무장력을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갈 때마다 느낀바이지만 우리 인민군대처럼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무장한 군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국제법에도 정전은 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선반도의 특수한 전쟁상황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침략자의 기도를 매번 단호히 저지파탄시키였습니다. 특히 저는 총포소리 없이 이기는 장군님의 특출한 전법에 깊이 감복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세계가 숨을 죽이고 주시하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성명전이나 담화전으로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일거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신묘한 지략으로 세인을 경탄케 하시였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가 으뜸 가는 승리입니다.

진리나 정의도 힘이 있어야 실현된다는 말처럼 공화국의 주장은 정정당당할뿐아니라 막강한 군사적힘에 의하여 안받침되고 있기때문에 언제나 폭탄과 같은 선언으로 침략자들을 혼비백산케 하는것입니다.

미제가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을 획책하면서도 그 도화선에 감히 불을 달지 못하고 있는것은 군사에 능통하신 탁월한 령장 장군님께서 계시고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정치가 있으며 세계적인 강군이 있기때문입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장군님을 칭송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아래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대걸작으로 창조되여 온 세상의 이목을 끌며 경하와 찬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우리 나라에 대해 감히 ≪악의 축≫이라고 하는 부쉬의 망언은 어디에도 통할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리랑≫과 같은 전무후무한 대기념비를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신이고 힘이며 예술이기때문입니다. 저는 그 황홀경속에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힘이 있다는것을 세계는 똑똑히 깨닫게 될것이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무적의 우리 군대가 있고 외세의 침략기도를 분쇄하는 우리 조선의 저력이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자주와 통일, 평화를 바라는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의 간절한 념원입니다. 통일된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1면에서 계속)

하기에 저희들이 남쪽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군사중시는 남의 동포들도 지켜 주고 조선반도 전체의 평화도 보장해 주며 민족의 자주통일도 실현할수 있게 한다고 경탄해 마지 않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평화의 수호자,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온 민족과 전 조선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고 지켜 주는 이 세상 가장 위력하고 우월한 사회주의의 정치방식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어 저희들도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길수 있었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이고 통일이며 우리 겨레의 무궁한 번영이고 행복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있고 장군님께서 키우신 무적의 강군이 있는 한 우리 조국을 건드릴자는 세상에 없으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보금자리에는 그 어떤 그늘도 지지 않을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머리가 희여 졌지만 잠시도 마음의 군복을 벗지 않고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직한 병사로 살겠습니다. 위대한 선군정치의 해발아래 온 민족이 통일강성을 떨쳐 갈 그날을 위하여, 존엄 높고 부강번영하는 **김정일**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운명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옵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이 편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이 25일 편지를 드리였다.

이번 축전은 우리 모두가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90돐을 조선의 친근한 벗들과 함께 가장 뜻 깊게 기념하고 인류문예사에 평양축전의 20년력사를 빛나게 아로새긴 인상 깊은 예술무대였다고 편지에는 지적되여 있다.

편지는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지적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귀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들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통하여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를 더욱 힘차게 부를것이며 축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편지에는 강조되여 있다.

조선중앙통신 4월 26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민족종합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아리랑≫축제가 14일 밤 10시에 막을 올렸다. 이 공연을 관람한 재미동포 현준기 선생과 김현환 박사는 공연관람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입 딱 벌리고 관람하기 시작해서 입 딱 벌린채 막이 내렸다≫고 이구동성으로 응답하면서 80여분의 축제가 한순간에 지나가는 듯 놀람을 금치 못했다고 말한다.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일정은 4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두달간의 공연으로 진행되지만 이북동포들과 일부 해외동포, 4월 봄축제에 참여한 외국인 형제들 그리고 외교관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개된 4월14일의 첫 공연은 성공리에 진행됐다고 한다.

여러 나라 당대표단, 대표들 ≪한민전≫평양대표부 방문

당정치국 위원 스테픈 팔머 클라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사회로동당대표단, 총비서 끌라우디오 깜뽀스를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대표단,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앤디 브룩스가 23일부터 25일사이에 ≪한민전≫평양대표부를 각각 방문하였다.

석상에서 박광기대표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아 가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그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고 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고 ≪한민전≫의 활동정형을 통보하였다.

대표는 최근 미국이 공화국을 함부로 걸고 들면서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미국은 무분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중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손님들은 ≪한민전≫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들은 동지적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한민전≫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인 련대성운동을 강화하는데서 자기 당들은 응당한 역할을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6일

무엇을 위한 ≪집단적자위권≫ 주장인가

22일 일본경제재정정책담당상이란 사람이 ≪집단적자위권≫은 매개 국가의 고유한 권리라고 하면서 일본의 ≪평화헌법≫이 개정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도통신은 ≪현직각료가 헌법개정문제에 대하여 론평하는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평하였다.

그러면 오늘 일본에서 이러한 ≪보기 드문 일≫이 벌어 지고 있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국수주의 세력의 군사적해외침략책동이 헌법개정을 통한 합법화 정책화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1946년 일본국회에서 새 헌법을 토의할 때 당시총리 요시다는 전쟁과 그리고 ≪자위권≫에 기초한 교전권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비롯하여 최근에 벌어 진 많은 전쟁은 자위권의 미명하에 감행된것≫이라고 실토한바 있다.

이처럼 ≪집단적자위권≫이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요시다도 인정한바와 같이 해외침략전쟁이였고 때문에 전후 일본의 ≪평화헌법≫은 이른바 ≪자위권≫에 기초한 교전권포기를 법문화하였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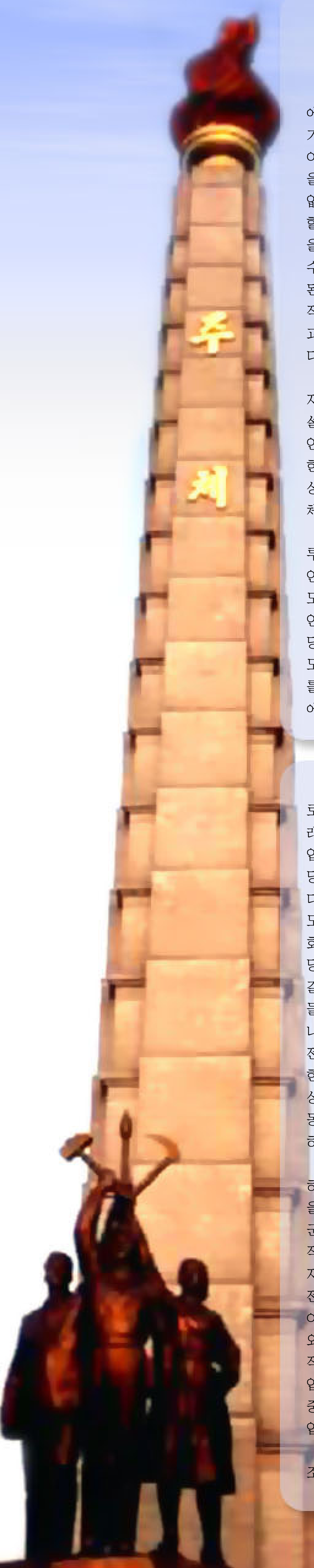
그런데 지금 일본은 유엔헌장에 의해 규정된 ≪적국≫의 오명도 씻지 않은 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정상국가≫의 체면과 권리를 떠들며 각료들까지 내세워 전쟁교리의 합법화를 주장하게 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진정으로 정상국가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침략적인 ≪집단적자위권≫을 주장할것이 아니라 과거범죄를 성근히 반성사죄하여 세기를 넘긴 해묵은 치욕의 때부터 깨끗이 씻어 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4월 25일

조선노동당건설의 력사적 경험 (9)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노작 - 주체75(1986)년



6. 당의 령도예술

령도예술을 확립하는 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특히 대중령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여도 당일군들과 당조직들이 올바른 령도예술을 가지지 못하면 대중을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없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 수 없습니다. 당의 령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이며 령도적 수완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능란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가질 때에만 전투적인 전위조직으로 될 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 과정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창조하고 그것을 당활동에 구현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령도예술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 사업작풍입니다. 당이 령도적 기능을 옳게 수행하려면 당 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당사업체계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 전개하는 질서와 제도입니다. 당 안에 혁명적인 사업질서와 제도를 철저히 세워야 당이 통일적인 규범과 규률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전투대오로 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성격과 사명에 비추어 볼 때 당사업체계는 마땅히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사업체계로 되어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수 있는 사업체계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적 요구를 구현하여 혁명적인 당사업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령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제도와 질서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며 혁명의 최고참모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의 사상과 령도는 당중앙위원회의 령도적 기능에 의하여 실현됩니다. 우리의 경험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령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만 당대렬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령도 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당 안에 당의 로선과 정책,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지시가 모든 당원들과 간부들과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침투하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을 당중앙위원회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집행하는 중앙집권적 규률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이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당중앙위원회에 제때에 보고하지 않고 자의대로 처리하면 당활동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전당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둘째로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각급 위원회들은 당중앙위원회의 령도 밑에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활동합니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령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 집행에서 당조직들과 대중의 창조력을 효과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집권당으로 출현한 첫날부터 당적 령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방침을 세우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이 심화, 발전되는데 맞게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려면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국가, 경제기관과 협동단체, 교육문화기관, 사회단체 조직들을 다 장악하고 지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과 각 부문 단위들에 조직된 당위원회들은 해당 지역과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해당 단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통일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은 해당 당위원회에 철저히 의지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한 데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세째로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이 아래 당조직들을 체계적으로 장악, 지도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도 원칙이며 사업 질서입니다. 상급 당조직들이 아래 당조직들을 장악 지도하는 사업질서를 세워야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의도에 맞게 사업해나갈 수 있으며 모든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상급 당조직들이 아래 당조직들의 사업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악과 통제가 없이는 당사업을 옳게 작전하고 전개할 수 없으며 아래 당조직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급 당조직들은 아래 당조직들의 실태와 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아래 당조직들에 대한 장악지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것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상급 당조직들의 일군들은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아래 당조직에 내려가 당정책 집행에 대하여 장악하고 지도하며 위에 올라와 총화하고 재무장, 재작전한 다음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당일군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중요한 목적은 당조직들을 도와주자는 데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상급 당조직의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당조직들의 사업을 장악, 통제하는 사업을 잘하는 것과 함께 중요하게는 아래 당조직들이 자기 단위의 사업을 잘 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래 당조직들에 대한 집중지도는 아래 당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지도방법입니다.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은 아래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정상화하면서 일정한 부문과 단위의 당조직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검열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당중앙위원회가 계획적으로 진행한 당 지방 조직들과 여러부문에 대한 집중 지도는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습니다.

당이 령도적 기능을 옳게 수행하려면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을 확립해야합니다.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특히 집권당의 경우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집권당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당의 일군들 속에서 대중들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거하여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료주의적 방법으로 사업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 당에서는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군중과의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일군들 속에서 대중과 리탈하여 관료주의를 보이며 당세도를 쓰는 것과 같은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을 확립하는 것을 당건설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웠으며 당일군들 속에서 낡은 사업방법을 반대하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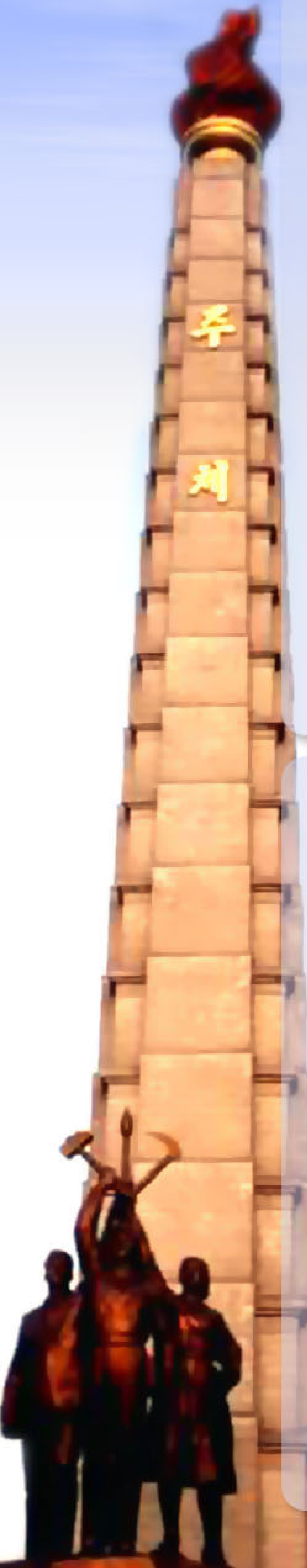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은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창조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지하투쟁도 하고 무장투쟁도 하면서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단계에 와서 항일혁명투쟁 시기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훈련하고 발전시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한마디로 주체의 사업방법입니다. 그것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실히 앞세우는 것입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인민대중의 자발적 열성과 창조적 자주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명령하고 지시하며 보고서와 통계들을 받고 결정서를 내려보내는 것과 같은 행정적 사업방법으로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할 수 없으며 그들의 자발적 열성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어떠한 일을 수행하든지간에 언제나 당정책과 당의 의도를 대중에게 해설, 침투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발동하는 정치사업을 첫 공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수행하는 혁명과업의 목적과 내용,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고 혁명과업수

→

당의 영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이며 영도적 수완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능란하고 세련된 영도예술을 가질 때에만 전투적인 전위조직으로 될 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습니다.



행에 자발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치사업은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근로자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원되게 하려면 그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깨닫고 그에 공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치사업은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식으로 하여야하며 대중이 당정책과 당의 의도를 완전히 인식하고 사상적으로 각성할 때까지 꾸준하고 참을성있게 하여야 합니다.

정치사업을 혁명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치사업을 혁명투쟁과 동떨어져 진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시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화시켜야 합니다. 정치사업은 광범한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만큼 몇몇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당일군들과 간부들, 당원들이 다 대중의 교양자, 선전자가 되어야하며 정치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방법으로 전당과 전체인민을 교양하고 발동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지도 일군들이 늘 군중 속에 들어가 군중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지도 일군들이 늘 군중 속에 들어가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상하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며 지도와 군중을 결합시키는 혁명적 사업방법입니다. 군중에 철저히 의거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활동에서 근본원칙의 하나이며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군중 속에 들어가 군중에 의거하여 투쟁을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었으며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만다 인민대중을 믿고 군중 속에 들어가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함으로써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당의 일군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 사업방법을 구현하려면 주체적인 군중관점을 가져야 하며 군중 속에 들어가는 것을 습성화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늘 군중 속에 들어가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해주어야 하며 실정을 파악하고 군중과 협의하여 혁명과업 수행을 위한 옳은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또한 군중 속에 들어가 군중을 교양하고 군중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당사업을 객관적 현실과 구체적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의 활동은 삶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모든 당사업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업은 혁명운동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결합하는 것은 대중지도를 통일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 제기된 혁명과업의 목적과 의의를 대중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적이며 일반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일반적 지도를 잘하는 것과 함께 여기에 해당 단위의 구체적 조건과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사람들을 교양하며 당정책과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대책을 세워주는 개별적 지도를 따라 세워야 합니다.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하는데서 효과적인 방법은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일정한 단위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것은 적은 역량으로 최상의 성과를 거두며 전반적인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현실속에 들어가 당의 정책과 방침을 자로 하여 사업전반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내어야 하며 역량편성을 잘하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을 벌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은 서로 다른 의식 수준과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창조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업은 한가지 처방이나 고정된 틀에 맞추어 할 수 없습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조건에 맞는 정확한 방법론을 세워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당의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적극벌이는 것입니다. 대중운동은 대중동원의 위력한 방법이며 대중의 주체적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혁명적 사업방법입니다. 대중운동은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높이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집단적 혁신에로 대중을 추동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혁명의 요구와 대중의 혁명적 사항,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여 일제사상잔재와 봉건사상잔재를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건국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새 조국 건설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당은 또한 전후 사회주의건설 시기의 천리마운동을 발기하고 힘있게 벌임으로써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 것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도로 다그쳐 나왔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현실적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위업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대중운동을 조직하고 지도하는데서 혁명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대중의 정치사상적 준비정도 맞게 대중운동의 형태를 바로 규정하고 투쟁목표와 과업을 뚜렷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운동에 대한 조직과 지도에서 특히 투쟁구호를 옳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명적인 구호는 대중에게 투쟁목표와 행동방향을 가르쳐주고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는 힘있는 기치로 됩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혁명의 요구와 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적중한 투쟁구호들을 제시함으로써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 당이 내놓은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모든 것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쌀은 곧 공산주의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구호들이 다 대중의 심금을 울렸으며 인민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서 매우 큰 작용을 하였습니다. 최근 시기에 우리 당이 내놓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와 같은 구호들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 지향을 옳게 반영한 좋은 구호들입니다.

당의 영도예술을 확립하는데서 사업작풍을 바로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업작풍은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노동계급의 당의 사업기풍이며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도덕적 풍모입니다. 당사업작풍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당 안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세우며 모든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가적 기풍과 인민적 품성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당사업작풍을 올바로 세워야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룰 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능숙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일군들 속에서 낡은 사업작풍을 없애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습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투쟁기풍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하는 당이며 투쟁하는 당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의 위업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온갖 낡은 것을 없애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는 거창한 위업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침체와 답보는 허용될 수 없으며 오직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하는 혁명적 기풍이 온 당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원대한 구상과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하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나 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담하며 통이 크게 사업을 전개하여 나가며 자만과 답보, 소극과 보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내일 계속)

3권 제7장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소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4. 국제당파견원
5. 백마에 대한 추억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3)

만주국이 내세운 툰장들 가운데는 우리를 지지하고 동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라자구 같은 곳은 시내에서 한 발자국만 나와도 다 우리 세상이고 우리 편 사람들이였다.

반유격구 건설 경험과 그 노선의 정당성은 그 후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지구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유감없이 증명되였다.

반유격구라는 것이 참으로 좋았다. 그래서 1930년 후반기 압록강 연안에 나와서 백두산 일대를 개척할 때에도 우리는 혁명군이 주둔하는 곳들에만 밀영을 건설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유격구로 만들어놓았다. 적백을 가리지 않고 군중들 속에 혁명조직을 박고 거기에 일군들을 파견하였다. 우리는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지 않고 적들이 이 지구를 주목하면 저 지구로 옮겨앉고 저 지구를 주목하면 또 다른 지구로 옮겨가곤 하였다. 그 사품에 정동철, 이훈, 이주익(이취)과 같은 애국구장, 애국백가장, 애국십가장, 애국면장, 애국순사, 애국자위단원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는 그때 적의 하부말단 통치기관들에 똑똑한 사람들을 공작원으로 많이 박아넣었다. 우리가 파견하지 않은 적잖은 하부말단 관리들까지도 혁명을 지지하게 만들어놓았다. 그들은 낮에는 만주국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열성을 부리는 척 하였지만 해가 떨어지면 혁명군의 길 안내도 하고 낮에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혁명군 공작원들도 만나고 혁명군에 보낼 원호물자 수집도 하였다. 동만과 국내에 창설된 반유격구들은 해방지구의 군대와 인민들을 보호하며 거기에 수립될 인민의 정권과 민주주의적 시책의 열매들을 보호하는 믿음직한 위성들로 되였다.

완전유격구 주변의 넓은 지역이 반유격구로 전환된 다음부터 항일유격대는 적구 깊이 침투하여 군중을 혁명화하고 당, 공청을 비롯한 전위조직들과 각종 대중조직들을 확대해나감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소극적인 방어전으로부터 적극적인 공격전에로 이행할 수 있었다. 항일전쟁을 주동적인 공격작전에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는 적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전을 타파하고 유격구 생활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식량 문제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반유격구의 건설은 적백구역의 설정으로써 많은 군중을 적의 편으로 밀어던지던 좌경적 편향을 극복하고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 밑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울 수 있게 하였으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조선혁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왕청지방의 반유격구들 둥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은 라자구와 량수천자였다. 라자구를 반유격구로 건설하는 데서는 이광의 공로가 컸다. 이광은 라자구에 파견되어 반일부대 공작도 하고 독립군 출신들과의 사업도 하면서 우리가 발을 붙일 수 있는 기틀을 튼튼히 마련하여 놓았다.

라자구는 1920년대 초부터 이동휘 일파가 독립운동의

라자구시가

주요기지로 개척한 고장이였다. 그때 이동휘를 따라다니며 독립군 운동에 관계했던 영감들이 라자구 지방을 쥐락펴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광은 그들을 통하여 이 지방 인민들을 혁명화할 수 있었다.

라자구에 반유격구를 창설하려고 그때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이 이 지방에 많이 파견되어 갔다.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대오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라자구를 혁명화하는 데서 큰 공헌을 한 최정화도 거기서 희생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유능한 지대장이였던 박길송과 최광은 그 당시 라자구에서 지하공작을 하였다. 적들이 이 고장에서 협화회나 협조회와 같은 악질적인 반동단체들을 조직하여 혁명세력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였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일회와 같은 큰 그릇의 대중조직들을 만들어 모든 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웠다. 라자구는 왕청의 혁명군중을 먹여 살리는 식량창고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소왕청 유격구에서는 식량사정이 곤란할 때마다 라자구 혁명조직에 사람을 파견하여 긴급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면 라자구에서 혁명조직 성원들이 십리평 돌문 안까지 쌀을 등짐으로 지고 와서 왕청 사람들에게 인계해주었다. 적들이 라자구를 점령한 조건에서도 해방지구들에서는 계속 그 고장의 쌀을 가져다 먹었다. 유격대가 해산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이 북만원정을 떠난 1953년 하반기부터 왕청현 내의 혁명가들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라자구의 식량을 먹고 목숨을 부지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의 ≪토벌≫을 피하여 한동안 라자구 서산에 가 있던 일부 혁명군중과 왕청 3중대 군인들도 이 지방 인민들이 가져다주는 식량을 소비하면서 1953년 가을과 겨울을 보냈다.

라자구가 이처럼 왕청혁명가들의 식량공급소와도 같은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낼 수 있은 것은 거기가 원래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기장밥을 해먹인다는 비옥한 곡창지대라는 데도 있었지만 그 지방 혁명조직들이 많이 들어가 막히고 그 조직들이 일상적으로 대중교양을 잘하였기 때문이다. 라자구의 백호장 김용운은 만주국이 신임하는 말단행정 심부름군이지만 내적으로는 우리의 조직원이었다. 그는 백호장이라는 합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혁명가들에 대한 방조를 많이 주었다.

적들은 유격대 공작원들의 성시침투를 막고 인민들이 혁명군과 내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반출을 가혹하게 통제하는 하편청년들을 도시경비에 상시적으로 동원시켜 출입자들을 엄중히 단속하게 되었다. 경비에 동원되는 청년들에게는 곤봉을 하나씩 쥐어주었다, 그 곤봉은 만주국이 발급한 일종의 신임장과 같은 것이였다.

혁명군이 라자구에 식량공작을 가는 날은 김용운이 일부러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청년들만 엄선하여 경비에 내보냈다. 식량공작을 담당한 사람들이 성시 주변에 나타나면 경비에 동원된 청년들은 그들에게 곤봉을 넘겨주고 마을에 달려가 백호장의 지휘 밑에 쌀을 모아가지고 돌아와 식량공작원들에게 넘겨주곤 하였다.

라자구에서는 혁명조직 성원들이 위만군들을 구슬려서 수만 발의 탄알까지 뽑아냈다. 그 당시 라자구 시내에는 혁명조직에서 운영하는 개인 상점이 있었다. 그 상점 주인은 오랜 공청일군이었는데 성시에서 혁명군에 보낼 원호물자를 자유롭게 뽑아내 가기 위하여 위만군 병사들과 결의형제까지 무었다.

돈에 환장한 어떤 만주국 군인은 다른 지방에 가서 물건을 염가로 사다가 값을 몇 배로 올려가지고 그 상점에 찾아와 자기 대신 상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군인이 물건을 가지고 장사질하는 것이 알려지면 처벌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부득불 상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군인은 상점주인과 결의형제를 무은 다음 그에게 탄알까지 팔아주었다. 상점주인은 탄알 한 발에 25전씩 사서 혁명군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수량은 무려 5000여 발에 달하였다.

이것은 반유격구 건설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해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군을 원호하는 데서는 왕청 남부 지역에 창설된 량수천자 반유격구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량수천자의 혁명조직들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해방지구에서 쓸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보내주었다. 우리는 그때 쌀, 피복, 성냥, 약품, 화약, 소금 등 유격구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물자의 많은 몫을 온성과 량수천자의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유격구에서 제일 귀한 것은 소금이였다. 죽을 다섯 숟가락쯤 먹고는 인단알말한 소금을 한 알씩 깨물고 억지로 간을 맞추는 형편이였다. 적들은 그때 유격구에 사는 생명들을 질식시키기 위하여 식량과 소금에 대한 통제를 무섭게 하였다. 가을이면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지어 거두어들인 쌀을 자리네가 관리하는 집단부락의 창고에 고스란히 가져다넣게 하고 식구 수에 따라 하루동안 먹을 만한 식량만 내주었다. 농민들에게 식량의 예비가 생기면 그 식량이 곧 항일유격대나 유격근거지 인민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적들은 소금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집사대라는 소금경찰대까지 조직해가지고 가옥들에 대한 수색을 무시로 하였다. 된장, 간장이 조금만 많아도 세금을 부과시키고 ≪볼기채≫라고 부르는 세모난 나무몽둥이로 무섭게 후

1933년 3월 11일 온성지구지하혁명 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 회의때 주변나무에 쓴 구호

→

유격구의 나날처럼 오태희로인의 집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려갈겼다. 우리는 1934년 가을에 근거지의 소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중대 성원 30여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군민들과 아동들로 구성된 공작대를 량수천자에 파견하고 거기에 말들까지 따라보냈다. 왕청에서 량수천자까지는 왕복 200리 길이었다. 사전에 우리의 통지를 받은 량수천자의 혁명조직에서는 온성 지하혁명조직과 남양운송부를 통해 넘겨받은 많은 양의 소금을 두만강변에 쌓아놓고 공작대를 맞이하였다. 공작대는 말 한 필에 소금가마니를 두세짝씩 얹어가지고 셋째섬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나머지 소금을 한 사람당 20-30킬로그램씩 등짐으로 져서 유격근거지까지 날라왔다. 일부 소금은 라자구에 가서 밀가루와 바꾸어왔다.

량수천자 조직이 우리에게 보내준 후방물자는 대부분 온성을 비롯한 육읍지구에서 넘어온 것이었다. 그곳 인민들은 우리 유격대와 유격근거지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의 많은 몫을 도문과 용정 일대에서 해결하여 보내곤 하였다. 적들의 감시와 통제가 심한 국내에서는 일용필수품들을 대량적으로 구입할 수 없었다. 국내 조직들은 도문이나 용정같은 상업지구들에 슬슬 건너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두었다가 제정된 통로를 통하여 항일근거지들에 보내주었다.

도문과 용정은 사실상 우리의 후방을 담당한 믿음직한 근거지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문이나 용정이나 백초구와 같이 우리의 혁명조직들이 조밀하게 박혀있는 고장들은 함부로 다치지 않았다. 처음에 우리 동무들이 백초구를 한 번 들이친 일이 있었는데 그 습격전투가 있은 직후 이광의 아버지가 연통해오기를 민족적 양심이 있는 부자들을 통일전선에 끌어들여야 하겠는데 그들이 몹시 놀랐기 때문에 후과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백초구와 같은 고장을 치지 않았다. 왕청과 그밖의 해방지구 군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서 육읍 일대의 반유격구는 실로 역사책에 대서특필해야 할 공적을 쌓아올렸다. 우리는 완전유격구와 반유격구 외에도 적 통치구역에서 유격대의 군사정치활동과 연락을 보장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거점들을 무수히 꾸려놓았다. 지하혁명조직들과 연락소들로 이루어진 이 활동거점들은 기동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띠는 유격근거지의 한 형태로서 용정, 훈춘, 도문, 로두구, 백초구를 비롯한 적 통치지역의 큰 도시들과 철도 연선지대들에 많이 꾸려졌다. 간도와 국내에 반유격구를 창설하던 잊지 못할 나날들을 회상할 때마다 내 추억 속에 가장 뚜렷이 떠오른 인물은 오중화이다.

서대문 형무소를 출옥하기 바쁘게 북행열차에 몸을 실은 그는 도문에 건너오자 회막동 근처에 있는 처갓집에서 며칠간 정양을 하고는 인차 석현으로 돌아와 나를 찾아왔다. 오중화가 감옥살이를 끝내고 왕청으로 돌아온 것은 남북만 원정을 마치고 유격구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안 되는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되고 위안으로 되었다. 그는 나를 만나기 바쁘게 큼직한 과업을 하나 맡겨 달라고 하였다. 병색이 짙은 얼굴을 보아서는 몇달 정양을 더 해야 할 형편이었는데 일거리를 달라고 자꾸 간청하는 바람에 가야허 주변의 일부 지역들을 반유격구로 꾸려보라고 하였다.

오중화가 속해 있는 제5구는 량수천자, 도문, 연길, 백초구, 대두천 등 적의 주요 토벌거점들과 잇닿아 있었고 가야허에는 일본영사관 경찰분서까지 도사리고 있었다. 1933년 정월초 류재구가 적의 습격을 받았고 그후에는 사수평이 두 차례나 토벌을 당하였다. 오중화 자신도 감옥에서 풀려 나왔으나 적의 꼬리가 계속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과업을 받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우리가 오중화에게 가야허 주변의 일부 지역들을 반유격구로 꾸려보라고 한 것은 그 지역들이 적의 군사요충지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또 적의 공격목표로 지목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위험을 동반하는 어려운 과업이었으나 나는 오중화를 믿었다.

1930년 가을의 첫 상봉 때 그는 벌써 나에게 지울 수 없는 믿음을 남겼다. 그때 나는 오중화의 집에서 그와 진지한 담화를 하였다. 담화를 끝내고 밖에 나오니 울타리 밖에 억대우 같은 청년들이 삼엄한 경비진을 치고 서 있었다. 동구 밖에도 그런 청년들이 여러 명 늘어서 있었다. 나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오중화의 사업능력과 혁명가다운 풍모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사업능력과 혁명가다운 수완은 군중을 끄는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중화는 자기가 사는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이발기를 하나 갖추어놓고 가위계라는 조직부터 먼저 내온 다음 거기에 동네에 있는 주민들을 다 망라시켰다. 그 당시 일반 이발소의 이발요금은 15전이었다. 그러나 오중화는 5전씩 받았다. 그 돈으로 책을 사서는 계에 망라된 사람들의 눈을 틔워주었다. 사람들은 눅은 값으로 이발을 하고 책을 보는 멋에 계에 열심히 모여들었다. 오중화는 그런 틈을 타서 계원들을 교양하였다. 가위계를 통하여 마을사람들을 초보적으로 계몽시킨 다음 이전날의 동창회, 학우회, 친목회 등 계몽단체들을 통합하여 영동친목회를 조직하였다. 이 친목회는 돈화와 할 바령, 동쪽 지구인 연길, 훈춘, 화룡, 왕청 일대 청년학생들의 합법적 조직이었다.

오중화는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연극공연도 자주 조직하였다. 그가 직접 각본을 쓰면 한개 분대도 넘는 4촌들이 달라붙어 배역도 나누고 장치도 만들고 저희들끼리 연출도 하여 미끈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곤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군중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놓고는 자기 가문 사람들로부터 혁명조직에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모든 마을사람들을 다 조직성원으로 흡수하였다.

겨울명월구회의를 전후한 시기에는 강상준, 조창덕, 유세룡 등과 함께 항일유격대 결성준비 작업의 중요고리의 하나인 무기획득 공작에 참가하였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취해낸 무기들은 최인준, 한흥권, 강상준, 김은식 등의 투사들이 망라되어 있는 별동대원들을 무장시키는 데 큰 밑천으로 되었다. 오중화는 우리의 의도에 맞게 적의 1차 공격목표로 지목되어 있는 5구의 일부 지역을 반유격구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그는 적 통치구역에 활동거점을 꾸리는 과업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도문의 천일인쇄소는 그가 꾸려놓은 중요한 활동거점으로서 혁명군의 귀와 눈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적들은 오중화와 그의 가문을 눈에 든 가시처럼 보고 그 일족을 멸살시킬 기회만 호시탐탐 노렸다. 1933년 봄에 유격대의 한 소조는 용정영사관에서 석현경찰서에 보내는 비밀문건을 압수하였다. 그것은 오씨일가를 전멸시키라는 살인지령서였다. 우리는 그 정보를 받은 즉시 유격대를 출동시켜 구제공작을 하였다. 유격대원들은 31명이나 되는 오씨네 식구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십리평으로 소개시켰다.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투지를 가지고 단거리 육상선수와도 같이 숨가쁜 속도로 일생을 줄달음쳐 살아오던 오중화는 1933년 여름 북봉오돈의 비밀아지트에서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적들은 체포현장에서 무참히 그를 살해하였다. 오중화가 최후의 순간을 어떻게 마쳤고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목격한 증견자는 없다. 그와 그의 동료들을 처형한 살인마들만이 그것을 영원한 비밀로 간직하고 학살현장에서 사라져버렸다.

오태희 노인이 주먹을 부르쥐고 십리평에서 북봉오동으로 뛰어갔을 때 오중화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비밀아지트 주변에 눈을 뜬 채 쓰러져있었다. 생명의 불꽃이 아직 채 꺼지지 않은 그 눈동자에는 그가 살아서 그렇게도 큰 애정을 가지고 자주 쳐다보던 유격구의 푸른 하늘이 비껴있었다.

그러나 입만은 생시보다 더 굳게 다물려 있었다. 오태희노인은 그 입매만 보고서도 아들이 조직의 비밀과 생명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장해서 노인은 더 슬프게 울었다. 세상에 태어나 34해밖에 살지 못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은 일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오래 산다고 더 큰 낙을 누린다는 법이야 없지. 그렇지만 아들아. 너는 너무도 일찍이 이 애비의 곁을 하직하였구나. 너를 그렇게도 아끼는 **김일성**장군이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

오중화

그때 노인은 아들이 시체를 부둥켜안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나는 오중화가 학살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 평소에 그렇게도 많은 말을 하고 그렇게도 많은 걸음을 걷고 그렇게도 많은 흔적을 남기면서 불같이 살아오던 사람이 이다지도 조용히 가버릴 수 있는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었다.

오중화의 곁에는 그를 바래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는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대지 위에 쓰러졌다. 그가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있었다면 그것은 과연 무슨 말이었을까? 반유격구 건설도 끝났으니 또 새로운 과업을 맡고 싶었노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오중화가 살아 있었더라면 나는 그에게 더 큰 중책을 맡겼을 것이다.

혁명하는 사람의 윤리에서는 일거리를 많이 주는 것이 최대의 사랑이고 최고의 믿음이다.

우리 혁명은 간도 일각에서 만사람의 총애를 받던 또 한명의 유능한 조직자, 선전자, 인민에게는 긍지를 주고 적들에게는 공포를 주는 성실하고 강직한 동량지재를 잃었다. 그것은 동만 땅에서 노도치며 전진해가는 우리 혁명의 앙양을 위해 정녕 가슴 아픈 손실이었다. 그러나 오중화는 그 장렬한 죽음으로써 군중을 각성시키고 궐기시켰다. 그는 희생되었지만 그가 피로 적시고 간 반유격구들에서는 항일대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떠메고 나갈 주인공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끝)

일화

사랑의 기념사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놓아가시는 불멸의 자국자국마다에는 인민군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일화들이 수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사랑의 기념사진≫에 대한 일화도 있습니다.

주체85(1996)년 3월 20일, 이날 전선시찰을 마시고 귀로에 오르시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높고 험난한 철령을 넘으시다가 거기에 위치한 512군부대를 찾게 되셨는데요.

그분께서는 차에서 내리셔서 그곳 부대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김일성**주석님의 현지교시판과 현지사적지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 시각 영마루 초소에는 박광철사병이 보초를 서면서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드리고 있었는데요. 뒤켠에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본 순간 그의 가슴속에서는 장군님께로 막 달려가 그분의 넓은 품에 안기고 싶은 충동이 용솟음쳤습니다. 자나깨나 언제나 마음속에 우러르며 단 한번만이라도 만나뵙고 싶었던 장군님이셨으니까요.

그러나 보초소를 이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어린 박광철사병의 가슴속에 끓고 있는 질풍같은 소원을 장군님께서 헤아려보시고 몸소 풀어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한 일군에게 어서 빨리 보초를 서고 있는 어린 전사를 데려오라시며 그가 올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전선동부에서 서부에 이르기까지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께 있어서 시간은 1분 1초가 새로왔죠. 하루해가 어느덧 저물어지자 해발 670미터나 되는 철령마루의 날씨는 살을 에이는듯 차거웠습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바쁘신 걸음도,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박광철사병을 기다렸다가 따뜻이 만나주셨어요.

자애로운 어버이의 다심한 미소로 박사병을 다정스럽게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름은 무엇이며 고향은 어디인가, 부모님들은 다 건강한가, 그리고 임무수행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가 등을 일일이 물어주셨습니다.

장군님의 물으심에 활달하게 대답한 미더운 병사의 모습에서 장군님께서는 대견함을 표시하시며 이 산중에서 수고많은데 어떻게 그냥 헤어지겠는가고 하시면서 친히 박광철사병을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순간 그는 가슴속에서 다시한번 감격의 격동이 용솟음쳤고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부풀어올랐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저 때문에 바쁘신 길을...≫

박사병은 이렇게 울먹거리며 장군님께 삼가 거수경례를 드리고 그분의 안녕과 건강을 간절히 축원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전사의 진정에 넘치는 축원의 인사를 받으시고 이윽고 철령을 떠나셨습니다.

어둠을 뚫고 달리시는 장군님의 승용차를 바라보는 그와 지휘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장군님의 전사된 한없는 자긍심과 함께 그분을 영원히 받들어 모실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군인들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친어버이의 다심한 사랑, 이 사랑이 있어 오늘 조선인민군은 일당백의 무적강군의 위용을 떨치는 존엄 높은 군으로 성장했다 하겠는데요.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은 그분의 선군영도하에 영원히 백전백승의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송가

야전차에 흐르는 4계절

1.야전차에 꽃내음 흘러드는데
장군님 평양 떠나 먼길 오시네
우리 민중 언가슴 녹여주시려
오시는 차창따라 아 봄이 흐르네
야전차에 흐르는 이 땅 4계절
장군님 가꾸시는 아 통일 4계절

2.새들도 그늘 찾아 나래 젓는데
장군님 높은 영 넘어오시네
자주의 열풍을 일으키시며
오시는 차창따라 아 여름 불타네
야전차에 흐르는 이 땅 4계절
장군님 가꾸시는 아 통일 4계절

3.골마다 그림처럼 단풍 타는데
장군님 험한 길 이어오시네
만복이 주렁지는 세상 펼치며
오시는 차창따라 아 가을이 익네
야전차에 흐르는 이 땅 4계절
장군님 가꾸시는 아 통일 4계절

4.겨레의 축원담아 흰눈 내려도
장군님 찬눈길 헤쳐오시네
백두의 폭풍으로 장벽 부수며
오시는 차창따라 아 겨울 빛나네
야전차에 흐르는 이 땅 4계절
장군님 가꾸시는 아 통일 4계절

흠모

김일성동지는 절세의 위인, 세계적인 수령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네팔왕국 국회 하원의장 따라나트 라나바트는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한평생 인민대중의 성스러운 자주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바치시며 20세기 년대기에 가장 빛나는 혁명생애를 수 놓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해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만나 뵈옵는 영광을 지닌것은 1991년 10월이였다.

태양과도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를 따뜻이 맞아 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세월이 흐른대도 영원히 잊을수 없다.

그이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였을뿐아니라 우리 네팔인민의 친근한 벗이시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이번에 조선을 다시 방문하여 나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눈부신 발전모습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세계 인민들이 뜨거운 지성을 담아 **김일성**동지께 올린 국제친선전람관에 진렬된 선물들을 보면서 그이는 정녕 절세의 위인, 세계적인 수령이시라는것을 절감하였다. 조선혁명과 세계 혁명앞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그이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다.

세계직업련맹 부총서기 데브꾸마르 강굴리가 태양절에 즈음하여 발표한 기념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주석은 정녕 조선의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수령이시였을뿐아니라 국제로동계급의 성업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희세의 위대한 수령이시였다.

필자는 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련맹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울이신 로고에 대하여 쓰면서 그이는 세계직업련맹의 가장 철저한 보호자이시고 수호자이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웠던 감격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그이는 한나라의 수령이시기전에 국제로동계급의 수령, 위대한 인간이시라고 썼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계직업련맹과 함께 영생하신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네팔 까뜨만두시 명예시민증서 전달식이 24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달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과 조선도시련맹 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문재철위원장대리, 조선네팔친선협회 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최정환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시장 케샤브 스타삐뜨를 단장으로 하는 네팔 까뜨만두시친선대표단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전달식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명예시민증서가 랑독된 다음 시장 케샤브 스타삐뜨가 양형섭부위원장에게 증서를 전달하였다.

위대한 탄생 빛나는 자국

오늘 우리 민중과 온 겨레는 뜻깊은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을 맞으며 민족의 수호자이며 민족번영의 튼튼한 담보자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탄생 빛나는 자국≫, 윤정원씨, 유진명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이 되는 뜻깊은 날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노정이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 나누고 싶어 이렇게 자리 함께 했는데요. 좋은 말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매우 뜻깊은 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선인민군은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1932년 4월 25일 **김일성**주석님에 의해서 창건이 됐죠. 그 당시에는 반일인민유격대로 호칭했어요. 그때로 말하면 우리 민족이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말미암아 망국노의 처지에 놓여있던 매우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민족이 처한 이 가공할 운명을 위기에서 건지려면 무장한 일제와는 무장으로 대항해 싸워야 한다는 그러한 천리를 안으시고 마침내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층 애국민중을 규합을 해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이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민중의 군대를 갖게 된 역사적 전환점이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겨레는 민족해방위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게 되었고 또 민족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펼쳐지게 됐죠.

유진명 : 정말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고 그후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되면서 그 활동이 더욱 강렬해지게 됐는데요. 조선인민혁명군은 정규군의 지원이나 국가적 후방도 없이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최신무기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일제와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었죠. 말 그대로 조선인민혁명군은 험로역경의 어려운 고난의 길, 전인미답의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초행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었던 겁니다.

사회자 : 조선인민혁명군이 걸음마다 겪어야 했던 그런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 특기할 100여일의 ≪고난의 행군≫만 놓고 봐도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행군이라 할 수 있잖아요.

유진명 : ≪고난의 행군≫은 주체27(1938)년 12월 남패자로부터 주체28(1939)년 4월 북대정자에 이르는 350리구간의 행군을 말하는데요. 여기를 80리 걸음으로 행군한다고해도 한주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무려 석달 열흘이나 걸렸는데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이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행군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윤정원 : 정말 ≪고난의 행군≫은 걸음마다 수십만 대적과 사나운 자연의 도전, 기아와 병마의 도전을 물리치고 한걸음, 두걸음 행진하는 말그대로 동서고금에 없는 행군이었습니다. 일제는 그해 겨울에 최정예를 자랑하는 관동군 주력부대를 비롯한 방대한 토벌역량을 들이밀어 조선인민혁명군, 특히 사령부를 집요하게 추격을 했어요. 바로 진드기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영활무쌍한 전법으로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며 적들을 답새기고 혼란에 빠뜨리며 부대를 승리로 이끄셨어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유진명 :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수많은 피어린 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셨을 뿐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영도하에 전인민적 반일투쟁을 고조시키기 위한 조국광복회결성과 항일구국군들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투쟁 등 광범위한 역량에서 항일투쟁을 본격 조직, 영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 반일투쟁은 전국적 판도에서 승승장구하게 됐던 겁니다.

사회자 : 정말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해 호된 타격을 받고 주체34(1945)년 8월 마침내 항복하게 되었는데요.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한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와 조국광복. 이것은 조선인민군이 자기 일대기에 기록한 가장 영광찬란한 특기할 사변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선인민군은 항일의 그 고귀한 전통을 이어받아 광복후 6.25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민족의 자주적 존엄을 수호한 자랑찬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미제침략자들은 최신장비로 무장한 자기 나라 육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 군대와 이남의 국군 및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한 무려 200여만명의 대병력을 동원을 해서 광복후 1년밖에 안된 청소한 이북을 삼키려고 북침을 감행을 했습니다.

유진명 : 그러나 조선인민군은 숫적, 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는 미국의 거만한 콧대를 정치사상적 우세와 전략전술적 우세로 격파했는데요. 조선해방전투에 대해 6.25전쟁에 참가했던 미침략군 장교 테론 마크는 필로 ≪한국≫전쟁에 이렇게 썼어요. ≪인민군은 미군의 방어를 정면으로 공격하여 그 다리를 묶고 후퇴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한편 위협 또는 침투방법에 의해 상대의 후방으로 진출해서 그 퇴로를 차단하는 전술을 썼다,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이건 사단지휘관이건 후방의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미군 지휘관들이 이미 때가 늦었을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전술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죠.

사회자 : 상승을 뽐내던 미제24공군사단장 *도 인민군 손에 포위됐잖아요. 어떻습니까. 6.25전쟁에서 1211고지방어전투는 적아간에 제일 치열한 격전장이었지 않습니까.

유진명 : 1211고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를 빼앗으려고 여기에 비행기, 포, 탱크 등 막대한 무력을 투입했어요. 폭탄, 포탄을 얼마나 떨구었으면 고지가 70미터가 낮아지고 장비가 숨을 곳이 없어서 병사들 틈으로 뛰어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속에서도 인민군 병사들은 갱도전에 의거해서 하루에도 수십번을 기어드는 적들을 덮치며 한치도 내놓지 않았어요. 인민군 용사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용감성에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적들은 제놈들에게 시체로 산을 쌓을 고지를 바라보기만해도 마음이 상한다고해서 ≪상심령≫,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듯하다해서 ≪단장≫ 등 1211고지는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오지 못한다고 해서 ≪함정골≫이라고 부르며 떨었다고 해요.

사회자 :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그렇게 깨어지고 적들은 휴전협정에 항복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잖아요.

윤정원 : 그에 대해서 휴전협정에 조인한

→

지난 6.25전쟁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영도밑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쳐부수고 영웅적승리를 이룩한 조선인민군

유엔군총사령관 클라크는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역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휴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이름을 쓰게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이 실패라는 감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선임자들인 더글라스 맥아더와 리치웰장군들도 공감이였으리라고 생각하였다≫라고 고백을 했고 훗날 클라크의 어머니는 자식의 몰골에 대해 ≪그의 당당한 기백의 위풍도 간곳 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두줄기의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유진명 : 클라크는 또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북조선군이 성공을 거둔 것은 **김일성**의 유능한 지휘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일성**은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망하게 될때까지 다년간에 걸쳐 일본군에 항전한 게릴라부대의 지휘관으로써 훌륭한 공격을 세웠으며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모든 조선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한 조선의 애국적 행동의 상징으로 되어 있었다.≫

6.25전쟁시기 마카오주둔 포르투갈 참모장이었던 이 나라 전대통령 도매크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미국이 만든 작전계획은 미국편에 선 서방 나라들의 참모장들, 군사전문가들인 30명의 *** 장군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토의한 끝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것을 단독으로 격파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눈으로 보고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이 세상에 한분밖에 없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위대한 영장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 6.25전쟁에서의 조선인민군의 승리는 전적으로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영

인민군군일들의 군사훈련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도의 결과였는데요. 정말 6.25전쟁은 조선인민군이 미국을 서산낙일의 하향길로 걷게 한 것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존엄을 수호했다는 점으로 해서 민족사에 또 하나의 특기할 장으로 된다고 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행로는 **김일성**주석님의 영도풍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더욱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명 : 김정일장군님은 **김일성**주석님의 영도풍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또 한분의 천하제일영장이시죠. 예로부터 명장은 전장에서 나타나고 전쟁은 영장을 낳는 요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장군이란 전쟁이 아니라 평화시기에도 적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어주는 그런 장군을 말하죠. 그런 장군이 바로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1960년대 ≪푸에블로≫호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헬기격추사건, 판문점사건 그리고 오늘에는 북미간의 치열한 핵대결전에서 이북의 계속되는 승리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의 결실입니다.

윤정원 : 장군님께서는 ≪푸에블로≫호사건때 미국놈들이 억류한 선원들을 당장 돌려보내고 사죄하지 않으면 무력사용을 하겠다며 휴전선에 방대한 무력을 투입하고 북을 위협을 할 때 배심든든하게 덤빌테면 덤벼라, 무주고혼을 만들어주마하고 간첩들의 자백서를 다 받아내고 미국의 사죄까지 받아내고서야 선원들을 시체와 함께 돌려주셨잖아요.

사회자 : 김정일장군님의 철의 담력과 의지는 주체82(1993)년 미제가 북에 있지도 않는 핵사찰을 구실로 한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몰아갔을 때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지 않았습니까.

유진명 : 그때 정말 이제 전쟁이 터지는가보다 했죠. 그런데 미제는 큰소리한번 못추고 **김정일**장군님의 준전시상태선포명령 한마디에 기겁을 해서 침략무력을 걷어갔거든요. 그리고 연이어 발표된 이북의 핵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선언에 미국은 벌벌 떨면서 이북이 끄는대로 회담탁에 끌려다녔고 나중에는 미국대통령이 이북에 핵담보서한까지 보냈잖아요.

윤정원 :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불을 불로 다스리는 것은 우리 혁명군대의 기질이며 고유한 대미방식이다, 우리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타격을 피할 자리가 이 행성위에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절대로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통해서 미제의 이른바 제2의 북침전쟁계획인 ≪5027≫작전계획도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으셨습니다.

사회자 : 정말 장군님의 지략과 담력을 보여주는 통쾌한 사변들이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의 탁월한 영도로 조선인민군을 말그대로 일당백의 무적강군으로 키우시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러셨죠. 그분께서 조선인민군을 현대적인 공격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 기울이신 노고를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찍이 주체의 군사사상과 이론, 수많은 전법들을 창출하셔서 군의 위력을 강화하셨을 뿐 아니라 최대의 열점지대로 되고 있는 판문점을 비롯해서 동서해로부터 북변에 이르기까지 인민군 초소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가셔서 군을 고무하시며 군력신장의 방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인민군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정신을 가지고 현대적 무장을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됐고 오늘 미국이 악의 축이요 핵검증이요 하면서 대북적대시정책에 혈안이 되고 있지만 이북은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을 하면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철옹성같이 지키고 있어요.

사회자 : 장군님께서 총대를 중시하고 선군정치, 선군영도를 하셨기에 수년간 계속되는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고수되고 민족의 존엄이 수호된다고 보는데요. 이건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자국에서 역시 자랑할만한 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은 이북의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위훈을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오늘 조선인민군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맡자≫ 이러한 슬로건을 들고 사회주의건설분야에서도 큰 위훈을 세우고 있어요. 세상에 군대는 싸움마당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 인민군대처럼 조국방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척척 해내는 그런 혁명군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거 아니예요.

유진명 : 지난 시기 남바다를 막아세운 서해갑문도, 그리고 안변청년발전소와 민생향상을 위해 세운 메기공장, 식품공장 등 이북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은 다 인민군대가 건설한거예요. 인민군대야말로 진짜 영웅군대죠.

사회자 : 지금까지 천출명장들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영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자랑찬 노정, 그 일단을 갖고 얘기 나눴는데요. 위에서 말씀 나눈 몇가지 사례만으로도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군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에 얼마나 괄목할만한 자국을 남기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조선인민군과 같은 민족군을 가진 건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5일

승산없는 대결

미국은 6.25전쟁, 푸에블로호사건, 북미핵문제 등 북미대결에서 언제나 패배자의 운명을 면치 못했는데요. 미국은 어제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북과의 대결에서는 쓰디쓴 패배만이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미운동가 김영수씨의 글 ≪승산없는 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며 화목하게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염원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더욱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해 불신과 오해, 대결로 이어오던 남과 북사이에는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들이 펼쳐졌고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자주통일의 이정표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패권주의와 강권전략, 반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해 조국통일운동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집권초기부터 대량살상무기개발국이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니 하면서 반북압살정책을 추구하던 부시행정부는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이북에 대고 테러지원국이요 악의 축이요 하는 황당한 궤변을 들고 나오면서 저들의 반북전쟁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그리고 이북을 핵공격대상으로 설정해놓고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해서 핵선제공격을 위한 합동군사연습까지 강행했다.

이것은 철두철미 자주적이고 존엄높은 이북을 어떻게 하나 압살하려는 발상이며 한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켜 전쟁을 유발하려는 미행정부의 극히 위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우리 민중 모두가 화해와 협력, 단합을 지향하고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이북에 대한 위협공갈은 곧 우리 이남 민중에 대한 위협공갈이며 이북에 대한 공격은 곧 우리 이남 민중에 대한 공격, 한반도전체의 평화에 대한 파괴로 된다.

군사적 패권주의와 강권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힘으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은 아프간전쟁에서의 일방적인 승리에 도취돼서 이북도 어떻게하나 힘으로 밀어붙여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강권만이 능사가 아니며 이북을 아프간이나 이라크와 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국에 있어서 커다란 실책이다. 미국은 현시대의 흐름,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인류가 자주의 길로 나가는 것은 역사발전의 필연적 법칙이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날 6.25전쟁에서 북에 의해 어떤 역사적 대참패를 당했고 ≪푸에블로호≫와 ≪BC121≫기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으며 이북에 대한 핵위협소동이 어떻게 막을 내렸는가를 다시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답해 나서는 것이 이북 특유의 기질이고 의지이다.

오늘도 이북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영도하에 천백배로 다져진 자기의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며 세계정상에서 자기의 존엄을 당당하게 빛내고 있다. 그분의 영도하에 원자탄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심단결의 천만대오가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의 주위에 똘똘 뭉쳐 있는 이북이고 강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막강한 군력을 떨치고 있는 이북이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없다는 산악같은 배짱을 갖고 주체사상의 기치로 세계를 선도하고 민족의 대로를 열어가고 있는 이북이 있어 존엄으로 빛나는 우리 민족의 오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북에 대한 미국의 압살정책과 침략기도는 승산없는 대결이다. 그것은 이북과의 대결에서 미국이 당한 과거의 수치스러운 참패와 자주로 존엄높고 자위로 막강한 이북의 현실이 웅변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중의 드팀없는 의지가 말해주고 있다.

패권주의와 강권전략, 반북압살정책은 냉전의 부산물이며 그 어디에도 통할 수 없는 시대의 오작품이다.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의 산물인 패권주의와 강권전략을 걷어치워야 하며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취소하고 반세기이상이나 이 땅에 주둔시키고 있는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 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올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대세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전략, 반북압살정책에 매달리면서 계속 대결만을 추구한다면 자주와 진보, 평화를 바라는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우리 7천만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해 역사의 시궁창에 쳐박히고야 말 것이다.

글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5일

1963년 5월 17일 격추된 미정탐직승기와 포로된 병사들 (위)
1968년 1월 23일 나포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선원들 (아래)

부시, 이북을 ≪악의 축≫이라며 또다시 비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 17일 미국대통령 부시는 한 연설에서 ≪악의 축≫을 이루는 소수의 체제가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해 세계의 문명사회에 위협을 주고 있다면서 이란, 이라크와 함께 이북을 또다시 ≪악의 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부시가 세론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자제하지 않고 계속 ≪악의 축≫망언을 줴치는 것은 이미 자기가 한 발언의 엄중성과 악결과에 대해 인정, 사죄할 생각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이북을 기어코 힘으로 압살하려 한다는 것을 웅변한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시의 ≪악의 축≫망언으로 말하면 저들의 대아시아침략전략과 세계제패야망실현에 가장 크게 도전한다고 보는 미국은 자주성이 강한 나라들을 힘으로, 군사적으로 덮쳐보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드러낸 정치깡패의 침략**이며 사실상의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미국은 그 누구의 대량살육무기위협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은 방대한 핵무기와 미사일로 세계 모든 지역을 겨냥하고 인류에게 항시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고 있는 위협의 장본인이고 최대의 불량배국가입니다.

세상이 다 인정하는 것처럼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테러국가, 악의 화신입니다. 미국은 인디안들의 피거름위에 솟아나 침략과 전쟁, 약탈과 살인으로 생존하고 살쪄왔습니다.

미국 성조기에 새겨져 있는 쉰개의 별 하나하나는 악의 산물입니다.

지난 세기에 있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만전쟁과 그레나다침공과 파나마침공, 발칸전쟁 등은 모두 미국에 의해 감행된 악의 전쟁이였습니다. 이러한 세계 최대의 불량배국가의 거두, 악의 화신이 감히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북을 ≪악의 축≫이라면서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야말로 극악한 전쟁광신자 불망나니라 하겠습니다.

부시가 세론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악의 축≫망언을 계속 줴치는데는 여러가지 흉악한 목적이 숨어있습니다.

지금 부시행정부는 지난해에 있은 9.11사건과 경제파국, 특대형 비리사건으로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올 가을에 있게 될 국회 중간선거를 치뤄야 하고 2004년에는 대선을 해야 합니다. 부시는 ≪악의 축≫발언을 계속해서 저들의 강경고압적인 외교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민심을 낚아 국회 중간선거와 대선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성하려하는 것입니다.

부시는 또 유례에 드문 군비증액과 전쟁책동, 이른바 테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합리화, 정당화하며 군수독점체들에게 배를 불려주어 자기를 적극 밀어준 은혜를 갚기 위해 ≪악의 축≫이라는 허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줴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가 ≪악의 축≫망발을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 해대는데는 또한 북에 편든 나라들을 놀래워 기를 꺾어놓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 반테러전쟁을 확대하며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에 심리적 압박감과 위협을 주자는 목적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시집단은 저들의 이같은 범죄적 목적을 절대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중은 부시가 이북에 대한 핵공격계획까지 짜놓고 그 실천을 위한 기회만을 노리면서 ≪악의 축≫망언을 계속 줴치고 있는데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반부시, 반미, 반전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3일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오늘 현실은 학생운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새삼스레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학생운동을 더욱 강화하려면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해 얘기좀 나눠보자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그럼 먼저 학생운동조직이 왜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돼야 하는가에 관해서 얘기됐으면 하는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규 : 일반적으로 대중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대중운동발전의 필수적 요구인데요. 만일 대중운동조직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되지 못하면 광범위한 대중을 한데 묶어세울 수 없고 따라서 대중운동을 성공리에 벌여나갈 수 없습니다. 대중운동으로써의 학생운동도 마찬가지죠. 학생운동조직이 학생대중 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돼야 그들을 한데 묶어 세워 운동을 힘있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학생운동조직이 광범위한 학생대중 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돼야 하는 것은 학생운동의 현실태를 봐도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또 일부 학생들은 한총련의 노선과 방침을 시비하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운동을 외면하고 있는 경향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데서 일련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투쟁에서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도 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의 상태가 이같이 계속된다면 당국의 탄압에 견뎌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의 사명과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 : 땅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나무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는 것처럼 학생운동조직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죠. 정말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드는 건 학생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할겁니다. 그러면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김현규 :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투쟁노선과 방침을 바로 제시하는게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투쟁노선과 방침이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학생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높은 의욕을 가지고 투쟁에 발벗고 나설 수 없는 것은 물론 그런 노선과 방침을 제시하는 조직을 따를 수 없죠. 역사는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지 않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노선과 방침을 제시할 때에는 투쟁에서 패했을 뿐 아니라 그런 조직은 대중으로부터 고립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운동조직은 운동의 성과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조직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투쟁노선과 방침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투쟁노선과 방침을 제시하자면 대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것을 투쟁노선과 방침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학생운동핵심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요구와 지향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정세를 정확히 분석, 판단하고 그에 기초해서 모든 투쟁노선과 방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관적 욕망만 앞세우면서 모험적이며 극좌적인 투쟁노선과 방침을 제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그런데 어떻습니까.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조직내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일부 학생들속에서 한총련의 운영방식을 두고 폐쇄적이고 경직돼있다는 비판의 울려나오는 조건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현규 :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한총련은 학생운동의 사령탑으로써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총련이 대중조직답게 큰그릇을 가지고 학생대중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 있는데요, 좀더 아량을 갖고 대중을 포섭해야 하겠는데 노선이나 이념 등 기타 문제에서 조금만 의견차이가 있어도 상대방을 배척하고 자기 주장만 주장이라고 고집하는 현상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일부 학생 가운데 그와 같은 편협한 사업작풍은 대오의 단합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죠. 학생운동조직은 이런 경직된 운영방식을 하루빨리 지양하고 조직내에서 민주주의를 잘 발양시켜야 할겁니다.
김현규 : 그러자면 관료주의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을 없애야 하는데요. 학생운동핵심들은 뜨거운 인정미를 갖고 학생들을 따뜻이 대하며 특히 주의주장이 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따돌리지 말고 노숙하게 포섭해 광범위한 대중을 모두 한총련에 굳게 결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그에 걸맞게 조직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김현규 : 조직을 대중운동조직답게 튼튼히 꾸리지 못하면 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을 수 없고 따라서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운동에 걸맞게 튼튼히 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운동에 걸맞게 튼튼히 꾸리자면 광범위한 학생대중을 망라할 수 있게 조직을 내오고 학생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조직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총련의 경우 각 지역총련과 대학 총학생회,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와 과학생회를 정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능력이 있고 애국심이 높으며 작풍이 좋은 그리고 대중성이 강하고 학생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학생들로 학생회를 꾸리는 것과 함께 일사분란한 조직체계와 사업체계를 꾸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한총련과 그 산하조직들을 잘 꾸리는 것과 함께 그 활동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조직을 잘 꾸리자는 것도 어디까지나 활동을 더 잘하는데 있습니다. 한총련과 산하조직들은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의식화작업에 큰 힘을 넣어 그들이 언제나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상정신적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식화작업을 학생대중의 준비정도에 걸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부단히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정세의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에 따라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학생대중의 감정과 정서에 부합되는 옳은 투쟁방법들을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광범위한 학생대중을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을 더욱 단련시키며 조직의 위력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얘기된 것을 종합해보면 학생운동조직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우선 노선과 방침을 정세요구와 학생대중의 지향에 걸맞게 세우고 조직내에서 민주주의를 최대한 발양시키며 조직을 강화하고 활동을 부단히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학생운동핵심들이 이것을 명심하고 더욱 분발해 학생운동을 명실공히 대중운동의 선봉대로 우뚝 세워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대중속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렸는데요. 학생운동핵심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조직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겁니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4일~26일

한국은 미국무기 난지도

전쟁기념관 앞에서 용산운동본부(준), 6차시민대회 열려

≪한국군은 미국의 처치 곤란한 무기들을 처리해주는 미국무기 난지도다≫

27일 오후 1시 용산 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준) 주최로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F-15K 결정 철회와 LPP 협정 국회비준 거부 촉구 6차 시민대회≫에서 이관복 박정희기념관반대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국방부의 F-15K 도입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관복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곳에 50여년이 넘도록 외국군대가 들어와 있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부끄러워 해야한다≫고 일갈한 뒤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땅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한 힘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복 상임대표는 또한 ≪침략자를 손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있는 한 주한미군은 절대 물러가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 천명, 이천명이 모여 일주일간 미군기지를 둘러싼다면 용산미군기지가 반환될 것≫이라고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범국민적인 실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은 정치연설을 통해 ≪얼마전 금천구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F-15K도입 반대서명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의 반미의식이 얼마나 높아져있는지 실감했다≫며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모아 현시기 미군기지내 아파트 건립반대, F-15K 재가거부, LPP 국회비준 거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투쟁하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양준석 사무국장 역시정치연설에서 ≪F-15K 도입을 이미 정해놓고 지난 3년 동안 국민을 기만해온 이 정권은 사기정권이자 배신정권≫이라며 국방부의 F-15K 도입을 강하게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F-15K선정 철회와 F-X사업 전면 재검토 △LPP 협정 국회비준거부와 미군기지 전면반환 △용산미군기지내 아파트와 고가도로 건립 중단 등을 주장했다.

결의문 낭독 후 참가자들은 국방부를 거쳐 용산 미군기지 1번 게이트까지 거리행진을 한 후 시민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시민대회에는 지금까지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활동을 주로 진행해온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외에도, 통일연대, 범민련, 민가협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다수 참가해 F-15K선정 철회와 용산미군기지 반환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27

美 사회노동당, 주한미군철수 주장

이북을 방문중인 미국 사회노동당 대표단이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과 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국 사회노동당 대표단 단장인 당 정치국위원 스테판 팔모 클라크가 22일 판문점에서 조선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으며 그는 미 행정부는 시대의 흐름과 조선 인민의 염원을 옳게보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 클라크 위원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한다≫면서 ≪미국은 조선의 통일에 간섭할 아무러한 권리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96년 전통적인 독립노조를 중심으로 노동당을 창당했는데 이번에 판문점에서 회견을 가진 미국 ≪사회노동당≫과 동일한 정당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용훈기자
통일뉴스 2002/04/27

집회공고

국방부의 F-X사업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

취 지 : 감사원에서는 4월 29일에 국방부의 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국민여론에 부응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입니다.

일 시 : 2002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장 소 : 감사원 정문 앞

주 최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정부 국방백서 ≪주적≫ 표현 대체 검토

국방부는 ≪삭제.대체 검토한 바 없다≫

정부는 논란을 빚어온 주적(主敵) 표현이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는 5월말로 예정된 ≪2002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기존 백서의 국방목표 에 언급된 ≪주적인 이북≫이라는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이다.

이와관련 정부 일각과 연구기관에서는 주적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으나 남북관계의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주적 표현에 대한 수정이 가해질 경우 94년 이전 국방백서와 같이 ≪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이북을 포함할 수 있다≫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모두 적이라는 개념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의선 연결 공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남북간 군사보장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주적 표현을 계속 유지하는 한 북측의 반발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적표현 대체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황의돈 국방부대변인은 공식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현재까지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에 대한 삭제. 대체 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했다.

황 대변인은 ≪향후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에 대한 실질 조치가 이뤄질 경우 상호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관현기자
통일뉴스 2002/04/27

서명해준 경북대학우들 위해서라도 교생실습 꼭 성공할것

한총련대의원 수배생활 4년, 김정희의 예비교사 되기

93년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로써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학생운동연합체로 확대 개편해 출범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하지만 한총련은 97년 정부와 사법부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매해마다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당선된 대표자인 대의원들이 수배생활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맞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전국 각 대학마다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수배생활 4년으로인해 27살인 지금도 대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특히 사범대생인 그가 수배자 처지에서 29일부터 5주동안 경북대 사대부속고등학교에서 공개 교생 실습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99년 경북대 사범대 학생회장, 2001년 부총학생회장 김정희(국어교육 95) 씨다.

27일 12시 경북대 민주광장에서 1백여명의 학생들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김정희 학우 교육실습 보장을 위한 민족복현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 양과 만나 현재 심경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가?

교생 실습을 나가는 3백여명의 경북대 사범대 학생들과 관광버스를 맞춰 출퇴근을 할 것입니다. 물론 내일 당장 학교 밖으로 한 발짝도 못나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교생 실습 당시 바로 연행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교생 실습을 성공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 이틀만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저의 공개 실습 보장을 위해 서명한 경북대 9백여명의 학우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교생 실습을 할 것입니다.

수배가 해제되고 교생 실습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시각도 있는데?

현재 한총련 대의원이 수배해제되는 길은 한총련 탈퇴서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탈퇴서라는 종이 한 장만 쓰면 수배도 풀리고 자유로운 활동도 할 수 있지만 탈퇴서를 쓰지 않았던 것은 제가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생명력이며, 양심의 정당성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꺽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안당국의 치밀하고 반인륜적인 모습 속에서 눈물로 이를 악물고 한총련을 지켜왔던 과정이기에 쉽게 수배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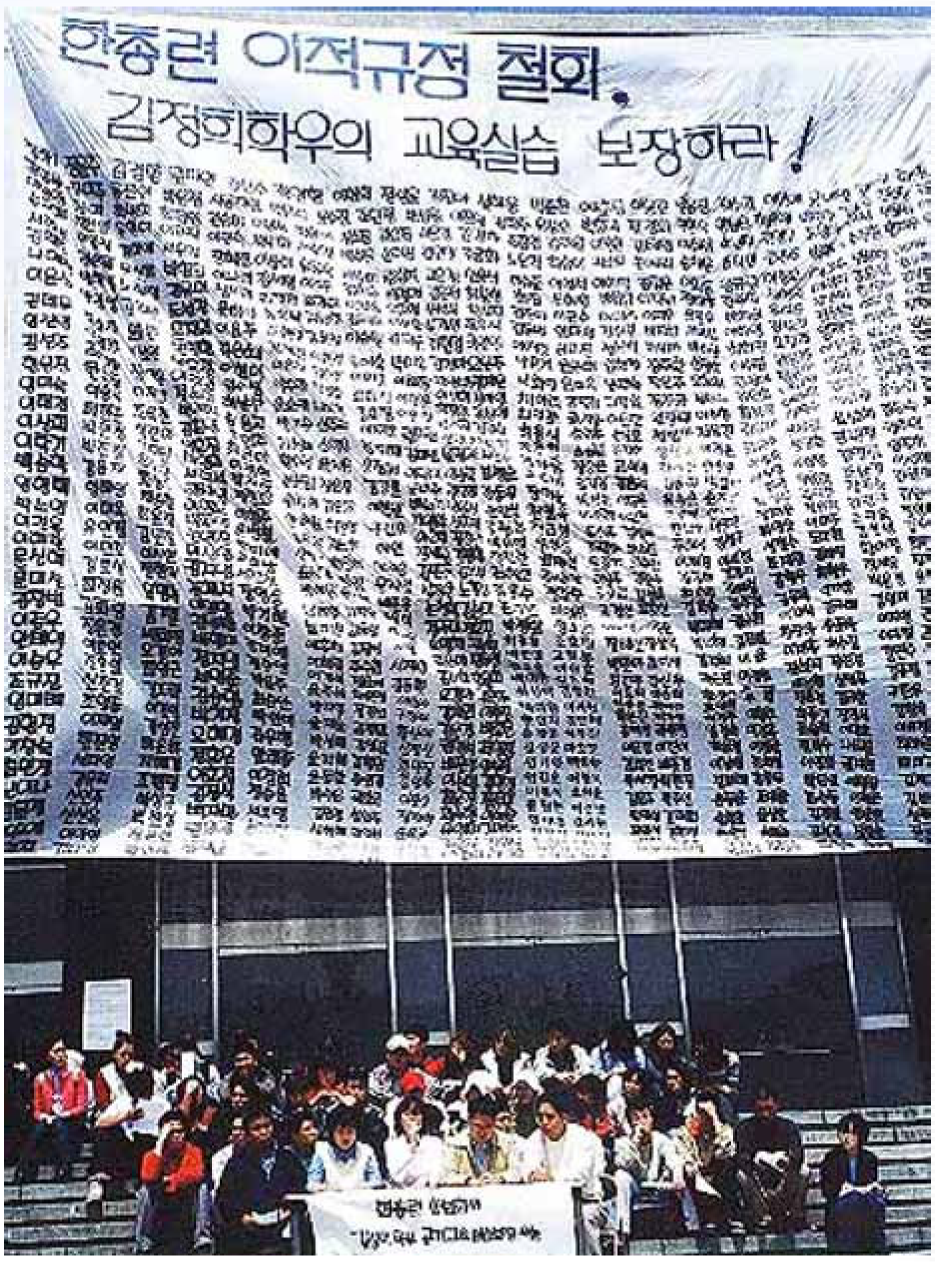
혹시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고 교생 실습을 반대하는 사대부고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있다면?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고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시점에서 누구나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 한총련의 활동이 결코 이적일 수 없고 정당하기에 만약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난다면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총련의 활동과 이적규정 문제 등을 설명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예의를 갖추고 진정한 실력과 자질로서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활동할 것입니다.

덧붙여 제 활동에 대해 적극적이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직접 저희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성헌기자
유뉴스 2002/04/27



공무원노조 정부 탄압에도 강력한 조직력 확보

OECD, ≪한국노동개혁특별감시 지속≫

공무원노조는 지난 24일 차 위원장 등 지도부가 농성중인 산곡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19~21일 사이 전국의 10개 지역본부를 출범시켜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OECD-ELSAC(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혁관련 특별감시대상국 탈피 노력을 무산시켰다≫며 ≪ILO(국제노동기구)에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제소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서울과 경기, 충북, 광주, 전남, 경남, 울산, 부산, 강원, 대구경북 등 10곳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지역연합이 공무원노조 지역본부로 체제를 전환하고 본부장을 선출했다≫고 밝혔으며 ≪이 달 안으로 대부분의 지부 결성까지 마무리 해 강력한 조직력으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공무원노조는 OECD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OECD는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의 결사의 자유 상황에 대해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때까지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를 종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참세상뉴스 2002/04/26

정신대할머니 ≪日청산≫ 토론차 첫 방북

정부, 평양방문 南대표단에 협력기금 지원

≪정신대 할머니≫로 통하는 70대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2명이 5월 3~4일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하러 평양에 간다.

남한에 사는 ≪정신대 할머니≫가 이북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일제 강점기에 피해를 당한 남북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군 위안부 문제, 강제노동, 역사왜곡 등 3가지 공통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모색할 이 심포지엄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문필기(77), 이용수(74)씨 등 ≪정신대 할머니≫를 포함해 지은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등 13명이 북측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대책위≫(종태위)의 공식 초청으로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얻고 29일 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5월 7일까지 이북을 방문한다.

이들은 내달 3~4일 남북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열리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평양 등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남측 대표단에 남북 주민왕래 지원자금 용도로 교통.숙식비 등 3천959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참가단체의 대표성과 민족공동체 회복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용성기자
통일뉴스 2002/04/26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4)

1. 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2. 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3.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4. 반제자주역량의 미군 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5. 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6. 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7.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 정권의 관계문제
8. 제안 -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6. 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지난 1월에 북측은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의 기간을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7천만 민족 앞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북측이 조국통일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민족통일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북측에서는 조선반도의 통일을 말할 때 민족통일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언제나 조국통일이라는 개념을 쓴다. 그러므로 북측이 말하는 ≪민족통일촉진≫은 민족의 통일을 촉진한다는 뜻이 아니라 민족통일전선을 촉진한다는 개념이며,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이라는 개념은 민족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촉진하는 기간이라는 뜻이다.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예전처럼 남과 북(북과 남), 해외가 모여 통일 행사만을 진행하자는 뜻이 아니라 폭넓은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자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려면 우선 통일전선전략 전반에 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일전선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남측에서 구축되는 지역통일전선이다.

첫째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에 관하여 살펴보자.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줄여서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1980년대의 통일전선전략이론에서는 이것을 ≪남북(북남) 통일전선≫이라고 불렀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한다는 말은 다양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사상, 이념,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찾아내고 이를 추구하기 위하여 결집한다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따르는 사회운동세력이 조직적으로 결합한 전선이지만, 민족통일전선은 그 3대 강령에 따라 결집되는 전선이 아니다.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조선민족의 민족통일전선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사상, 이념,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집하는 전선이다.

우리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반국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전국적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 조선민족의 민족통일전선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하는 것이므로 그 중심은 북측의 정치역량이 된다.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의 구축은 북측의 정치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남측과 해외의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북측의 정치역량은 평양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김대중 정권을 포괄하는 민족통일전선이 실현 가능한 것임을 입증하였으며, 지금 그러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민족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수립될 ≪민족통일기구≫는 바로 이 민족통일전선이 남북(북남) 정부의 정치적 의사와 요구, 그리고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각이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의사와 요구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지위와 권능을 가진 정치기구로 조직화된 실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의 목표는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여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바탕은 무엇인가? 그것은 6.15공동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을 지지・찬동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결집된 새로운 전선이 민족통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북측의 정치역량이 민족분열세력의 방해책동을 꺾고 승리한 결과로 6.15공동선언이 성립된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제국주의의 조선반도 지배정책이 낳아놓은 산물이라고 보는 착오나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 보는 착오는 모두 버려야 한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남북(북남) 정부당국 사이에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은 일단 돌파구가 열렸다. 그러나 남측의 정부만이 아니라 정당, 사회단체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은 아직 돌파구를 열지 못했다. 그렇게 된 것은 남측 정부당국이 방해・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측 정부당국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된 것이 마치 자기들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가능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통제범위 밖으로 벗어나서 남북(북남)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을 ≪범죄적 일탈행위≫로 규정하면서 짓누르고 있다. 남측 정부당국은 남북(북남)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의 교류는 허용하지만 민족통일전선 구축사업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다. 남측 정부당국은 교류는 자기들의 ≪대북 포용정책≫을 실현하는 방도인 반면, 민족통일전선 구축은 북측의 대남정책을 실현하는 방도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남북(북남)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평가절하하거나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교류 자체를 금압했던 6.15공동선언 이전의 상황에서는 남북(북남)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 자체가 의의를 가졌지만, 6.15공동선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누가 무엇을 위하여 교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북남)교류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대북 포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북(북남)교류를 추진하느냐가 선택적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북측의 정치역량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남 교류를 추진하면 그것은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교류가 된다. 북측의 정치역량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북남)교류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유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로, 남측에서 구축되는 통일전선에 대하여 살펴보자. 남측의 통일전선에는 두 종류가 있다.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과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이 그것이다.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을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부르고,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먼저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민족민주전선)에 대하여 알아보자.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의 3대 강령을 최고의 높이에서 실현하게 되면 그것이 곧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ational Liberation Democratic Revolution)이다. (이 글에서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이 아니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DR)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이러한 개념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서술하겠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은 종국적으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남측에서 민족민주전선의 초기 형태의 조직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생겨나기 이전인 1980년대에 정립된 통일전선전략에서는 남측 지역 통일전선을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파시스트 정권 하에서 정립되었던 남측 지역에서의 통일전선전략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해명하였다. 이미 1960년대부터 40여 년 동안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투쟁해오고 있는 각양각색의 민족민주전선은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통일전선이다. 그렇지만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불과 10년의 연륜밖에 갖지 못한 청소한 운동력이므로 다른 나라의 민족민주전선들처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할 만한 사상적・조직적 준비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아직 혁명운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3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선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물론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자기의 역량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장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남측에서 민족민주전선의 초기 형태의 조직이 생겨난 이후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리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지금 우리는 통일전선전략이론을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해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통일전선전략을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측 지역의 통일전선을 말한다. 이것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일부분이다.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이 구축되어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측 지역의 통일전선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주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지역

→

통일전선이다.

그렇다면 민족민주전선은 지역통일전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항일혁명시기에 조선민족의 통일전선운동사에 이룩된 역사적 경험에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민족의 항일혁명의 역사적 경험은 통일전선이 승리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조선민족의 역사에서 통일전선의 승리를 가장 빛나게 이룩했던 역사는 조국광복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국광복회는 **김일성**주석이 항일혁명시기에 결성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는 분산되어 있었던 민족의 반일역량을 반일자주화의 기치 아래 결집하고 조직화했던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다. 조국광복회의 투쟁사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역사적 가르침을 받고 있다.

첫째는, 지역통일전선의 핵심을 세우는 문제이다. 조국광복회라는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는 핵심역량은 조선인민혁명군으로부터 나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조국광복회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이것은 오늘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해준다. 지역통일전선의 구축은 그 전선을 이끌어나가는 핵심역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핵심역량은 민족민주전선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통일전선은 생각할 수 없으며, 민족민주전선이 든든하게 서있지 못하면 지역통일전선도 구축할 수 없게 되며 설령 구축한다고 해도 미약한 운동력이 되고 말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할 핵심으로 든든히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지역통일전선의 역할을 인식하는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통일전선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족민주전선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는 그러한 그릇된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민족민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해서도 안 된다.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변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을 배제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따르는 세력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편협한 경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민주전선을 그 핵심역량으로 하여 구축되는 폭넓은 전선이다. 민족민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지지・찬동하는 세력이라면 과거를 묻지 말고 어떤 세력이라도 손잡고 통일전선의 길로 나서야 한다. 원래 통일전선운동이란 통일전선에 참여하는 상대에게서 견인・포섭해야 할 측면과 통제・봉쇄해야 할 측면을 정확히 가려보면서, 견인・포섭과 통제・봉쇄를 능숙하게 전개하는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전선운동이다. 지역통일전선 안에서 친미예속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높은 수위의 주장을 한다든지,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은 교정되어야 한다.

셋째는, 지역통일전선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문제이다.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세력은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대상은 반통일세력이므로 고립・타격하여 소멸하여야 한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북측 정치역량이 구축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의 대상이므로 민족민주전선이 김대중 정권을 자기의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민족민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측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는, 통일전선의 강령을 설정하는 문제이다. 지난날 조국광복회는 반일의 기치 아래 반일역량을 결합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다. 그런데 오늘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반미의 기치를 든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까?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구축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은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내걸지 못하였다. 김대중 정권이 반미자주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조건에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반미자주화운동을 전면에 배치한 지역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기는 힘들다. 반미자주화운동이란 미군 철거투쟁으로 전개되는 운동인데, 남측에서 미군 철거투쟁의 기치를 들었을 때 결집될 수 있는 역량은 현재 민족민주전선에 포괄되어 있는 역량으로 한정된다.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을 자기의 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민족대단결의 강령이다.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을 가지고 민족대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6.15공동선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력으로 존재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과 연방제통일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운동력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민족통일전선이나 지역통일전선은 그것을 자기의 전략목표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민족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은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세력과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세력이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합된 운동력으로 존재해야 한다.

다섯째는, 지역통일전선을 조직화하는 방도의 문제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조국광복회는 일제의 악랄한 탄압 속에서 반일투쟁을 벌어야 했으므로 비합법조직으로 조직되었으며 또 그렇게 활동했다.

그렇다면 지금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조직을 비합법조직으로 건설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조직은 어디까지나 합법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5월

광 고

구국전선

주체91(2002)년 4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사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70년
백두산 3대장군의 손길아래
[명제묶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에 관해 주신 교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중에서
강철의 영장의 불멸의 업적
조선인민혁명군창건과 그 역사적 의미
무적필승의 강군 그 원천
명장의 풍모를 완벽하게 지니신 군사의 영재
선군영도로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신 **김정일**장군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여사
[에세이] 내가 본 조선인민군
[시모음] 빛나라 선군의 총대여
[춘추세론] 현대판 돈키호테
평양소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혁명활동 소식

무적필승의 강군 그 원천

군사훈련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